

# 디지털 시대의 고전 서사 교육과 <케이팝 데몬 헌터스>

Classical Narrative Education in the Digital Age and <K-pop Demon Hunters>

## 정보라미

**국문요약** 본고는 세계적 인기를 얻은 애니메이션 <케데헌>에서 우리 고전 서사 문학의 편린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발견되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고전 서사 교육에 하나의 보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케데헌>의 서사 중 우리 고전 서사문학과 유사해 보이는 부분을 살펴보았다.

먼저 헌트릭스 세 멤버의 영웅적 면모, 악령과의 군담, 루미의 이중적 정체성, 그로 인한 타자화의 경험, 이중적 정체성을 감추며 바 꾸려는 점 등에서 여성 영웅소설과 <케데헌>의 서사에 유사성을 확인했다. 그러나 시대적 한계로 인해 여성 영웅소설의 여성 영웅이 이중적 정체성을 용인받지 못했던 것과 달리, <케데헌>의 루미는 시대적 한계를 벗어나 자유로운 상상력과 만남으로써 이중적 정체성을 가진 영웅으로서 스스로 주체가 될 수 있었음을 밝혔다.

다음으로 주인공의 고독감, 인귀의 강렬한 만남, 그 만남의 심중한 의의, 남녀 주인공의 시나 노래를 통한 교감, 현실적 장애에 의한 이별 등에서 <케데헌>과 애정 전기소설의 인귀교환 모티프가 닮아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루미는 사랑하는 존재로 인해 행복한 결말을 맞는 점, 진우와의 만남이 통속적 흥미를 고조시키는 점에서 애정 전기소설과 차별되었다. 이에 <케데헌>의 긍정적 분위기와 애정 전기소설의 비극적 정조가 다른 미감을 갖게 되었음을 밝혔다.

이상의 비교를 통해 학생들과 외국인들이 우리 고전 서사를 보다 쉽게 접하고, 그 장르적 특성과 개별 작품에 대한 이해를 구체화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핵심어** 디지털 시대, 고전 서사 교육,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여성 영웅소설, 애정 전기소설, 디지털 콘텐츠

- 차례**
- 서론
  - 이중적 정체성을 지닌 여성 영웅:  
여성 영웅소설의 이해
  - 이계의 존재와의 깊은 교감(交感):  
애정 전기소설의 이해
  - 결론

## 1. 서론

디지털 시대 고전 서사 교육의 향방에 대한 모색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고어(古語)로 쓰인 데다 고사(故事)나 삽입시 등으로 현대 학생들에게 낯설고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는 우리 고전 서사의 가치를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는가를 고민한 결과, 다채로운 고전 서사를 현대의 문화콘텐츠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sup>1</sup> 현대의 흥미로운 콘

• 부산대학교 점필재연구소 전임연구원

1 정선희, 「고전소설의 문화콘텐츠화를 위한 수업방안 연구」, 『한국고전연구』 37, 한국고전연구학회, 2017, 5~30쪽; 김수연·윤서연·오지원, 「디

텐츠를 개발하거나 활용해 고전 서사의 가치를 전달하는 교육 방법을 탐색해온 것이다.<sup>2</sup>

그 가운데 후자와 관련하여 서유경, 황혜진, 송팔성, 한길연, 김하라, 이승은, 주지영 등 여러 연구자들이 국내외의 학생들의 고전 서사 교육에 다양한 현대의 콘텐츠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sup>3</sup> 학생들에게 익숙한 현대의 콘텐츠를 활용할 때 “심리적 장벽의 높이를 낮추고, 내용 면에서 다소 진부하게 느껴질 수 있는 고전 문학에 창조적 감상의 동기를 부여”<sup>4</sup>하는 등 고전 서사 교육에 효용이 있음을 주목한 것이다.

특히 최근 “디지털 환경에서 문학과 문학이 아닌 다른 자료를 겹쳐 읽고, 그로부터 새로운 해석을 이끌어내는 법을 교육할 필요성”<sup>5</sup>을 역설한 이승은과 외국인의 고전문학 교육에 한류 콘텐츠의 적극적 도입을 주장한 주지영의 견해<sup>6</sup>는 디지털 시대에 국내외의 학생들에게 고전 서사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관련해 유념할 만하다.

이에 본고는 디지털 시대에 국내외의 학생들에게 우리

지텔 감수성과 대학의 고전문학 교육: 메타버스를 활용한 <고전문학과 영상>(DT)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56, 이화어문학회, 2022, 5~28쪽; 정선희, 「대학 전공교육으로서의 고전소설 수업 방안 연구: 쓰기 실습과 주제어 접근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61, 한국고전연구학회, 2023, 67~89쪽 등.

2 서유경,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고전소설교육 설계」, 『고전문학과 교육』 10,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5, 53~80쪽; 황혜진, 「문화적 문식성 교육을 위한 고전소설과 영상변용물의 비교 연구」, 『국어교육』 116, 한국어교육학회, 2005, 375~408쪽; 송팔성, 「한국고전문학교육 영상 콘텐츠의 담론 유형별 활용 및 글쓰기 방안」, 『고전문학과 교육』 14,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7, 147~182쪽; 한길연, 「사범대학 고전문학교육의 현황과 제언」, 『문학교육학』 63, 한국문학교육학회, 2019, 45~89쪽; 김하라, 「〈李生窺牆傳〉과 〈그 여자네 집〉 함께 읽기를 통한 한문소설 수업 방안 모색」, 『한문교육논집』 55, 한국한문교육학회, 2020, 49~82쪽; 주지영,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외국인 학습자 대상 한국 고전문학 교육 방안: 드라마 <웃소매 붉은 끝동>을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44,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23, 169~197쪽 등.

3 서유경, 앞의 논문, 65~74쪽; 황혜진, 앞의 논문, 378~380쪽; 송팔성, 앞의 논문, 169쪽; 한길연, 앞의 논문, 67~75쪽; 김하라, 앞의 논문, 51쪽; 이승은, 「국내외 디지털인문학 교육 사례와 고전문학 교육에의 시사점」, 『고전문학과 교육』 51,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22, 5~40쪽; 주지영, 앞의 논문, 177~178쪽.

4 김하라, 앞의 논문, 51쪽.

5 이승은, 앞의 논문, 30쪽.

6 주지영, 앞의 논문, 177~178쪽.

고전 서사를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하나의 시론(試論)으로서, 현대의 세계적 인기 디지털 콘텐츠인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를 고전 서사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케데헌>은 세계적 플랫폼인 넷플릭스에서 2025년 6월 20일에 출시된 99분 분량의 애니메이션 영화이다. 이 작품은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에서 제작하고 메기 강, 크리스 애플헌츠가 감독한 미국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다.

이 영화는 넷플릭스 영화 부문 글로벌 누적 시청 3억 회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 흥행 작품이 되었을 뿐 아니라,<sup>7</sup> 주인공인 가상 걸그룹 ‘헌트릭스’가 부른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골든(Golden)’이 세계 양대 차트로 불리는 미국 빌보드 차트 ‘핫 100’과 영국 오피셜 차트 ‘톱 100’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고,<sup>8</sup> 작품의 다른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사자 보이즈의 ‘소다팝(Soda Pop)’과 ‘유어 아이돌(Your Idol)’ 역시 각각 차트 3위와 6위에 오르는 등<sup>9</sup> 작품 자체뿐 아니라 작품에서 파생된 콘텐츠들의 인기도 무척 높아 주목받고 있다.

비록 이 작품이 외국 기업에 의해 만들어지고 배급되었음에도 <케데헌>에서는 문화적 기반으로서의 한국적인 정체성이 잘 확인된다. <케데헌>의 한국적 정체성은 케이팝 대표 제작진의 참여, 멜로디와 가사가 갖는 케이팝 특유의 감각, 일상적 소재를 통한 한국 문화의 자연스러운 노출<sup>10</sup>등에서 드러난다.

한편 <케데헌>이 우리 고전문학의 서사를 직접 활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케데헌>에서 우리 고전 서사문학의 편린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발견되기도 한다는 점은 재미있는 사실이다.

7 신정원, 「케데헌, 누적 시청수 3억 돌파...OST 빌보드서 호성적 유지」, 『스포츠월드』, 2025.9.17.

8 사지원, 「케데헌 열풍이 우리에게 남긴 것」, 『동아일보』, 2025.8.25.

9 박정환, 「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 영국 음원·북미 극장 흥행 동시 석권」, 『글로벌 비즈』, 2025.8.25.

10 사지원, 앞의 기사.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거센 인기를 얻고 있는 현대의 디지털 서사 콘텐츠인 <케데헌>을 우리 고전 서사의 교육에 하나의 보조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우리 학생들과 외국인들에게 우리 고전 서사를 교육하는 데 여러 다른 효과적인 방안이 있겠지만, 이러한 본고의 시도 또한 우리 학생들과 외국인들이 우리 고전 서사를 보다 친근하게 접하고 그에 대한 이해를 쉽게 구체화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 고전 서사 문학 장르 가운데 <케데헌>과 부분적으로 유사한 요소들이 확인되는 여성 영웅소설 및 애정 전기소설 장르를 <케데헌>과 견주며 보며, 그 유사성과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 고전 서사 문학을 낫설고 어렵게 여기는 우리 학생들과 외국인들이 고전 서사 장르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개별 고전 서사 작품의 독자로 거듭나고, 고전 서사의 장르 및 개별 작품이 갖는 구체적인 특징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해 나가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 2. 이중적 정체성을 지닌 여성 영웅

### : 여성 영웅소설의 이해

케이팝 여성 아이돌 헌트릭스가 화려한 무대 뒤에서 악령과 귀마를 막음으로써 세상을 지키는 숨은 영웅으로 활약한다는 <케데헌>의 주요 서사는 우리 여성 영웅소설을 상기시킨다.

먼저 주인공 루미를 포함한 헌트릭스의 세 여성 멤버가 영웅적 면모를 지니는 점, 반동 인물인 악령들과의 군담을 보여주는 점 등에서 여성 영웅소설과의 공통점을 쉽게 찾을 수 있다.<sup>11</sup>

그런데 <케데헌>은 루미를 중심으로 자아가 회복되는 과정을 보여주는바 그 색깔이 전통적인 영웅 서사와 다르다는 사실도 지적된 바 있다.<sup>12</sup> 이는 현재 우리가 쉽게 접하고 떠올리는 ‘영웅 서사’가 슈퍼히어로물이나 남성 영웅 서사에 주로 한정되는데, <케데헌>의 영웅 서사에 그와 구별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현대의 슈퍼히어로물과 우리 영웅 서사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최고운전>, <금방울전> 등의 초기 영웅소설과 슈퍼히어로 이야기의 괴물로서의 영웅의 형상을 대비해 살핀 이정원의 논의,<sup>13</sup> 현대 한국 슈퍼히어로 영상의 원형을 한국 고전 영웅 서사에서 탐색하고 이를 헐리우드 슈퍼히어로물과 대비한 권도경의 연구,<sup>14</sup> 헐리우드 슈퍼히어로 영화와 영웅소설 <홍길동전>, <소대성전>, <유충렬전>의 공간과 캐릭터를 비교해 영웅소설의 슈퍼히어로 이야기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한 송성옥의 논문<sup>15</sup> 등이 있다.

특히 송성옥은 슈퍼히어로가 초인적인 능력으로 인해 타자화라는 개인의 문제를 지니면서 이와 별도로 사회와 국가의 적을 상대하는 영웅으로서 이중적 자아를 갖는 점, 적과 대결한 후에도 여전히 타자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는 사실 등을 지적하면서, 이를 우리 영웅소설과 변별되는 지점으로 언술한 바 있다. 우리 영웅소설의 주인공이 대개 시련은 겪되, 타자화나 그로 인한 이중적 자아의 갈등은 뚜렷이 경험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sup>16</sup>

로 영화의 서사를 갖춰줌”을 언급한 바 있다.

<sup>12</sup> 이종길, 「케데헌 성공 비결. 완벽 강요하는 사회에 던지는 질문[케데헌 현상]」, 『아시아경제』, 2025.8.20.

<sup>13</sup> 이정원, 「영웅소설의 괴물 문제: 슈퍼히어로와의 대비의 관점에서」, 『우리어문연구』 55, 우리어문학회, 2016, 99~129쪽.

<sup>14</sup> 권도경, 「한국고전영웅서사원형의 재생산과 코리안 슈퍼히어로물의 탄생, 그리고 헐리우드 슈퍼히어로물과의 서사코드적 차이」, 『비교한국학』 22(1), 국제비교한국학회, 2014, 139~172쪽.

<sup>15</sup> 송성옥, 「조선시대 영웅소설과 슈퍼히어로」, 『고소설연구』 49, 고소설학회, 2020, 5~40쪽.

<sup>16</sup> 송성옥은 <홍길동전>이 예외적으로 “홍길동이 형상적 괴물은 아니지만 가정과 사회로부터 타자화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타자’의 캐릭터를 보여준다”고 지적하면서 “이와 같은 캐릭터의 모습은 영웅소설 전체를 통해서 좀처럼 발견할 수 없는 대단히 독특한 양상”임을 언술하고, <소대성

<sup>11</sup> 오경진, 「케데헌 메기 강 감독 “루미의 이중적 정체성. 보편적 공감 이끈 힘”」, 『서울신문』, 2025.8.22. 메기 강 감독 또한 <케데헌>이 “슈퍼히어

그런데 남성 영웅소설과 달리, 우리 여성 영웅소설에서는 주인공이 여성이라는 생득적 한계로 인해 타자화되는 경험을 하고, 여성이면서 영웅이라는 이중적 정체성을 갖는다. 이는 “뛰어난 자질을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성으로 태어난 이상 그 능력을 펼칠 기회를 획득할 수가 없”<sup>17</sup>기 때문이다. “여성 영웅들은 자신이 여성적 현실에 머무는 한 주체가 되지 못하고 타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식”<sup>18</sup>하지 않을 수 없던 것이다. 즉, 여성 영웅소설의 주인공들은 영웅적 자질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아닌 여성으로서 타자화를 경험해야 했다.

이에 주인공이 영웅으로 자타 공인되는 남성 영웅소설과 달리, 여성 영웅소설의 경우 대개 주인공들은 여성이자 영웅이라는 자신의 이중적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 채 남장(男裝)을 하게 된다.<sup>19</sup> 여성 영웅소설의 주인공이 남장을 하게 되는 이유는 작품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남녀의 차별이라는 제도에서 비롯”<sup>20</sup>되어 “여성임을 숨기고 남성으로 변모하는 과정”<sup>21</sup>이라는 서사적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여성 영웅소설의 주인공은 남장을 하는 순간 다른 세계 경험을 하게 되며 언어, 대화, 복식, 사회적 지위 등의 모든 면에 있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됨으로써 “여성 영웅이 남장을 하고 남성 젠더를 수행하는 동안

에도 여성 젠더가 공존”하게 되는데<sup>22</sup> 여성 영웅이 남성적 영웅으로서의 정체성과 여성으로서의 이중적 정체성을 지닌 존재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케데헌>에서 루미가 생득적 한계로 인해 타자화를 경험한다는 점, 루미가 악령과 헌터의 혼혈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악령 사냥꾼으로서 활동하며 이중적 정체성을 갖는다는 점과 상통하는 면이 있어 보인다.

여성 영웅소설이나 <케데헌>에서 발견되는 이런 영웅의 타자화 경험 및 이중적 정체성의 문제는 일견 현대의 슈퍼히어로물과 유사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슈퍼히어로가 그 사회에 정상적으로 편입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초인적 능력 때문”<sup>23</sup>이라는 지적을 통해 짐작되듯, 현대 슈퍼히어로물의 영웅은 자신이 지닌 영웅적 우월성으로 인해 타자화되는 데 비해, 여성 영웅소설의 주인공이나 <케데헌>의 여성 영웅인 루미는 여성이나 악령과의 혼혈처럼 배제되어야 하는 존재로서 타자화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즉 여성 영웅소설과 <케데헌>의 주인공 루미는 영웅이면서도 배제되어야 하는 존재라는 정체성을 공유한다.

여성 영웅소설의 주인공이 자신이 여성이라는 것을 숨겨야 했던 것처럼, <케데헌>의 루미는 자신의 악령과 헌터의 혼혈임을 숨겨야 했다. 이는 배제되어야 하는 존재로서 갖는 자기의 정체성으로 인해 타자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영화 초반 루미는 긴 옷으로 몸에 있는 악령의 무늬를 감추고, 멤버들과 목욕탕을 가지 않으면서 악령과의 혼혈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애써 숨기고 외면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서 조만간 황금 혼문을 완성함으로써 자신의 몸에 남겨진 악령의 흔적을 없앨 수 있기만을 고대하는 것이다.

전), <유충렬전> 등 이원적 구조를 보이는 영웅소설에서는 주인공의 초월적 능력으로 인해 사회에서 배척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송성욱, 앞의 논문, 16~26쪽.

17 이지하, 「주체와 타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여성영웅소설」, 『국문학연구』 16, 국문학회, 2007, 6쪽.

18 이지하, 앞의 논문, 6쪽.

19 남장 모티프가 여성영웅소설의 중요 요소라는 사실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거듭 지적된 바 있다. 전용문, 「여성영웅소설의 계통적 연구」, 충남대 박사학위논문, 1998, 15쪽; 정병현, 「여성영웅소설의 이야기 전개방식」, 『한국의 여성영웅소설』, 태학사, 2000, 276쪽; 조은희, 「고전 여성영웅소설의 여성주의적 연구」, 대구대 박사학위논문 2005, 51~52쪽; 최지녀, 「여성영웅소설의 서사와 이념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5, 8쪽 등.

20 정병현, 앞의 글, 277쪽.

21 이지하, 앞의 논문, 2쪽.

22 최지녀, 「여성영웅소설과 로맨스 판타지 웹소설의 비교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50, 72~73쪽.

23 송성욱, 앞의 논문, 18쪽.

이는 여성 영웅소설의 주인공이 남장을 통해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감추고 바꾸려던 모습을 연상시킨다. 여성 영웅소설과 <케데헌>의 주인공은 모두 자신의 이중적 정체성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겪으면서 배제되어야 하는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감추는 한편, 배제되지 않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런데 여성 영웅소설과 <케데헌>의 이런 방식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정체성이란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뜻하는바, 본래 바꾸기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여성으로서 남성으로 변신하려는 것이나<sup>24</sup> 악령의 혼혈로서 몸에서 악령의 무늬를 제거하려는 것처럼 배제되어야 하는 존재로서 갖는 정체성을 배제되지 않을 수 있는 존재의 정체성으로 바꾸려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여성 영웅소설의 주인공이 “여성에게 가해지는 사회적인 제약을 피하여 자신이 원하는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남장을 하고 남성 위주의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지 남성이 되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sup>25</sup>이었음에도, 남장이 “여전히 남성적 질서에 근거하여 남성성을 드러내는 한에서만 주체화를 이룰 수 있다는 의식을 반영”하기에 “남장이라는 수단 자체가 여성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드러내고 올바른 주체화를 도모하기에는 한계를 내포”<sup>26</sup>한다고 비판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성 영웅소설에서는 여성 영웅의 남장이 발각되면 여성 영웅은 두 가지 갈림길에 놓인다. 대개의 여성 영웅소설에서처럼 남성 주인공과 혼인함으로써 여성의 제자리라고 여겨지는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방한림전>이나 <부장양문록>처럼 남성으로 행세하면서 영웅으로서 남

은 삶을 지속해나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sup>27</sup> 이 두 가지 길은 모두 여성이면서 영웅인 ‘여성 영웅’으로서의 정체성을 끝내 오롯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sup>28</sup>

<케데헌>의 결말에서 루미 또한 배제되어야 하는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다. 귀마를 물리치고 혼문이 완성되었음에도 여전히 몸에는 악령의 무늬가 남아 있다. 그러나 이는 더 이상 악령과의 혼혈이면서 악령 헌터인 루미의 정체성에 어떤 문제도 빚지 않는다. 오히려 루미는 “마침내 진실을 마주해” “상처는 나의 일부”로 받아들인 결과 “두려움 없는 자유로움”을 획득하게 되었던 것이다. 악령의 문양이 몸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루미는 이제 당당하게 헛트릭스 멤버들과 목욕탕을 가고, 민소매를 입어 악령의 문양을 드러낸 채 앨범 커버 사진을 찍는다. 배제되어야 하는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기꺼이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임으로써 루미는 진정한 영웅이 되고, 영웅으로서 수용된 것이다.

타자화된 존재가 주체로 다시 서는 방법으로 “스스로 주체가 되는 길”과 “타자의 자리에서 주체의 자리로 자리를 바꾸기를 시도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며, 여성 영웅소설은 후자의 방법을 취했다는 이유로 종종 비판받기도 했다.<sup>29</sup>

그러나 이는 공적 활동이 원천적으로 봉쇄당하는 등<sup>30</sup> 여성으로서 여성의 문제에 대한 적극적 해결책을 모색하

27 김나혜는 <방한림전>과 <부장양문록>의 여성 영웅이 일생 동안 본인을 남성으로 여기며 사회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두 작품에 한정되는 공통된 특성으로 주목하며, 두 작품에 나타난 여성 영웅의 형상을 비교 분석한 바 있다. 김나혜, 「<방한림전>과 <부장양문록>에 나타난 여성영웅의 차이와 그 의미」, 『어문론총』 56, 2012, 117~141쪽 참조.

28 예외적으로 <홍계월전>의 경우, 혼인 후에도 계월이 전장에 나가 영웅으로서 활약하기도 하지만, 이 또한 남장을 통해 이루지는바, 남성 전대를 획득함으로써만 가능한 일임을 짐작할 수 있다.

29 이지하, 앞의 논문, 9~12쪽. 박희병 또한 여성 영웅소설의 여성 영웅이 다분히 ‘남성화된’ 여성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여성 영웅이 기존의 권력을 강화하고 온존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비판한 바 있다. 박희병, 「한문소설과 국문소설의 관련양상」, 『한국 고전소설연구의 방법적 지평』, 알렙, 2019, 225쪽.

30 정병현, 앞의 글, 276쪽.

24 성전환수술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성적체성을 완전히 바꿀 수 없었던 당대 상황에서 여성에서 남성으로 변하는 것이 불가했다는 서술임을 밝힌다.

25 이유경, 「고소설의 전쟁 소재와 여성영웅 형상」, 『여성문학연구』 10, 한국여성문학학회, 2003, 151쪽.

26 이지하, 앞의 논문, 9쪽.

기 어려웠던 당대의 시대적 한계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성 영웅소설은 “여성의 현실적 상황에 대한 인식과 그 해결에 대한 모색”<sup>31</sup>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당대에는 시대적 한계로 인해 이중적 정체성을 온전히 용인받지 못했던 여성 영웅이라는 존재는 현대의 <케데헌>에 와서 시대적 한계를 벗어나 자유로운 상상력과 만나게 되었다. 그 결과 루미는 배제되어야 하는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더 이상 걸림돌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 이에 <케데헌>의 루미는 이중적 정체성을 가진 영웅으로서 스스로 주체가 되는 다른 길을 보여줄 수 있었다.

이상에서 <케데헌>과 여성 영웅소설을 비교해 보았다. 교수자는 이상의 비교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여성 영웅소설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도록 강의 후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시할 수 있다.

- ◎ 여성 영웅소설과 <케데헌>의 주인공이 경험하는 배제와 타자화는 어떻게 같고 다른가?
- ◎ 여성 영웅소설과 <케데헌>의 주인공은 문제에 대해 각기 어떤 해결책을 도모하는가?
- ◎ <케데헌>과 비교해 여성 영웅소설의 문제 해결 방식이 갖는 의의와 한계는 무엇인가?
- ◎ <박씨전>, <홍계월전>, <방한립전>, <부장양문록> 등 여성 영웅소설 작품을 실제로 읽어보고, 한 작품을 골라 해당 소설의 주인공과 <케데헌>의 주인공을 스스로 비교해 보자.

학생들은 이러한 문제의 답을 모색해나가는 과정에서 여성 영웅소설 장르의 특징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별 작품을 강독해나가며 우리 여성 영웅소설의 독자로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 3. 이계의 존재와의 깊은 교감(交感)

#### : 애정 전기소설의 이해

<케데헌>의 세계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와 귀마가 호령하는 악령의 세계로 구분된다. 이계에 속하는 악령이나 귀마는 현실의 인간세계인 “우리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상정된다.<sup>32</sup> 그럼에도 악령들은 아직은 다소 불완전한 혼문을 통해 종종 이 세계를 침범해왔던바 이 과정에서 진우 또한 현실의 인간세계인 “우리 세상”으로 들어와 루미를 만날 수 있었다.

진우는 자신의 괴로운 기억을 지우겠다는 뚜렷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세계에 잠입해 루미를 만난 것이었고, 루미 또한 처음에는 진우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악령으로 치부했을 뿐이다.

진우: “악령인 동시에 헌터인 여자애가 인간 세상에 숨어 자유롭게 활보하고 다닌다고?”

루미: “악령이 아니고 헌터야.”

진우: “그럼 문양이 왜 있어?”

루미: “넌 몰라도 돼.”

진우: “나도 알아, 그 문양을 가진 느낌.”

루미: “넌 악령이야. 악령은 아무것도 못 느껴.”

(...)

진우: “이건 내 치부의 영원한 흔적이야. 떨쳐낼 수 없는 기억이지. 네 것도 뭔가의 흔적이야. 숨기고 싶은 게 있지.”

루미: “넌 날 몰라.”

진우: “내겐 말해도 되는 거 알지? 난 이해할 수 있어. 나만이 이해할 수 있어.”

루미: “난 너랑 전혀 달라.”

<sup>32</sup> 악령[demon]과 관련해서는 “관념상의 이계에 머물러야 하나 인간세계에 출몰함으로써 인간에게 위화감을 일깨워 혼란을 일으키는 상상적 존재”라는 ‘귀신’의 정의를 참조할 만하다. 정솔미, 「한국 문헌소재 귀신담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21, 29쪽.

<sup>31</sup> 정병헌, 「여성성의 숨김과 드러남: 여성영웅소설의 양상」, 앞의 책, 310쪽.

진우: “그래 부정하겠지. 나도 그랬으니까. 마음 바뀔 때까지 기다릴게.”<sup>33</sup>

까치와 호랑이를 통해 이뤄진 첫 만남은 루미가 진우를 자신과 전혀 다른 존재로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문양을 가진 느낌”을 알기에 “나만이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는 진우에게 루미는 그와 자신이 전혀 다르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는 세 번째 만남에서 크게 진전된다.

루미: “우리가 이기면 혼문이 봉쇄돼. 그럼 넌 자유로워져. 귀마는 영원히 쫓겨나고 이 세상의 모든 악령이 사라질 거야. 그리고 난 이 문양들에서 벗어날 거야. 더는 숨지도 않을 거고 비밀도 없겠지. 혼문이 봉쇄될 때 넌 이쪽에 있으면 돼. 악령의 세계와 귀마에게서 벗어나는 거야. 그 목소리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울 수 있어.”

진우: “혼문이 나 같은 사람을 지켜 줄 거라고 생각해?”

루미: “넌 가족을 지키려고 했어. 그러다 실수한 것뿐이야.”

진우: “그리 단순하지 않아.”

루미: “하지만 난 존재 자체가 실수지.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 그러니까 난 믿어야 해. 너에게 희망이 없다면 나에겐 더 없을 테니까.”

(…)

진우: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난 네가 실수라고 생각안해.”

위의 예문에서 확인되듯 루미는 진우의 과오가 실수였을 뿐이라고 위로하고, 진우는 “악령인 동시에 헌터”인 루미의 존재는 실수가 아니라며 위로한다. 루미는 진우에게 귀마를 벗어날 방법을 제안하면서 귀마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진우에게 “너에게 희망이 없

다면 나에겐 더 없을” 것이라 단언한다. 이는 “악령인 동시에 헌터”로서 악령의 문양을 가진 자신의 치부를 온전히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며 짙은 고독감에 휩싸여 있던 루미가, 악령의 문양을 치부의 흔적으로 지닌 진우에게 강렬한 동류의식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들 사이의 교감은 마지막 만남인 네 번째에서 절정에 이른다.

루미: “내일 말이야. 내가 제안한 거 생각해봤어?”

진우: “나도 네 황당한 계획을 믿고 싶어. 하지만 난 널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

루미: “실은 이미 도와줬어. 난 평생 이 비밀을 품고 살았어. 내 존재 자체가 내 치부였지. 근데 숨기면 숨길수록 수치심은 커져만 갔고 내 삶을 의미 있게 해준 유일한 것이 망가져 버렸어. 내 목소리. 근데 널 만나고 너랑 얘기하면 할수록 이유는 모르겠지만 내 목소리가 돌아왔어.”

루미는 진우와의 만남을 통해 평생 치부로만 여겨오던 자신의 존재를 그대로 수용할 용기와 희망을 얻었던 것이다. 이에 루미는 수치심에 점점 망가져 가던,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해준 유일한 것”인 목소리를 회복할 수 있었다. 루미가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차마 말할 수 없던 치부를 진우에게 터놓으며 삶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음은 해당 장면의 OST인 〈Free〉의 다음 가사를 통해 더 잘 확인된다.

“숨으려 했지만 뭔가 깨져버렸지. 노래하려 했지만 나오지 않았지. 목 안에서만 뱀도는 말들. 웃으려 했지만 숨이 막혔지. 하지만 네 곁에서 나 비로소 숨을 쉬어. 넌 내가 쓸모없다 하지만 내게 넌 소중한 사람이야. 그동안 품었던 간절한 바람. 이제 알아. 우리가 변할 수 있던 걸. 다만 너와 함께여야 해.

33 본고에서 제시하는 〈케데헌〉의 대사는 넷플릭스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자막을 받아 적은 것이다. 이하 모두 동일함을 밝힌다.

네게 마음을 열 때마다 웬지 모를 확신이 들어. 네게는 무엇이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날 옥아매는 수많은 비밀. 날 위협하게 만드는 수많은 상처. 네 안의 어둠. 네게만 있는 게 아니야. 더 이상 도망치지 말고 함께 맞서 보겠니?”

(…)

“상처만 되는 희망, 단념해 버리네. 아무도 뚫을 수 없을 것 같던 어둠을 뚫고 네가 다가와 영영 물어 버린 줄 알았던 나를 깨우려 해.”

자신의 정체성을 누구에게도 터놓을 수 없던 탓에 외로워하던 루미는, 어떤 희망도 단념한 채 자기만큼이나 외로워하던 진우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을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는 계기를 갖고 변화할 수 있었다. “날 위협하게 만드는 수많은 상처. 네 안의 어둠”이 “네게만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 루미와 진우는 “활짝 편 내 손, 이제 네가 잡아”라고 함께 노래하며 손을 맞잡는데, 두 사람의 손에는 동일한 악령의 문양이 보인다. 이 장면에서 이들이 동류의 식을 기반으로 외로움을 공유하며 깊고 강렬하게 교감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끝내 이별을 맞는다. 이는 짧고 강렬한 만남 뒤의 영원한 이별이다.

루미: “진우, 안돼”

진우: “미안해. 전부다.”

루미: “널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는데”

진우: “해줬어. 내 영혼을 되찾아줬잖아. 이제... 네게 줄게.”

귀마에 맞서는 루미를 보호하기 위해 진우는 기꺼이 소멸되기를 자처한다. 진우는 본래 이계에 속한 존재였기에 둘의 만남은 애초부터 지속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나 이 만남이 한시적인 것이었음에도, 짧은 만남의 결과 루미는 지난 기억으로 괴로워하는 진우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진우는 이미 루미가 자신을 자

유롭게 해줬다며 루미에게 그 영혼까지 주게 되었다. 그런 만큼 이 만남은 두 사람 모두에게 매우 강렬하고 큰 의미가 있는 경험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바, <케데헌>의 루미는 현실 세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 수용될 수 없기에 고독한 존재로서 이계의 존재인 진우와 만나게 되었는데 진우 또한 자신의 지난 과오로 인한 기억을 지우고 싶어 하는 고독한 존재였다. 이에 둘은 짧은 만남을 거듭하며 몸에 악령의 문양이라는 치부를 지녔다는 강렬한 동질감을 느끼게 되어 깊이 교감하며 서로 위로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둘은 <Free>와 같은 노래를 통해 마음을 나누기도 했다. 이 만남을 통해 루미는 자신을 받아들이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나 헌트릭스 멤버들과 함께 혼문을 완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루미와 진우는 인간과 비인간이라는 존재론적 차이가 있었던바 진우의 자발적인 소멸로 인해 끝내 이별하게 되었다.

<케데헌>의 루미와 진우의 이러한 만남은 인귀교환(人鬼交歡) 설화나 <최치원>, <이생규장전>, <만복사저포기> 등의 우리 초중기 애정 전기소설<sup>34</sup>의 인귀교환 모티프와 유사한 지점들이 여럿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주인공이 깊은 고독감을 갖는 점,<sup>35</sup> 둘째, 인간과 귀신[악령] 간의 강렬한 만남이 이뤄지는 점,<sup>36</sup> 셋째, 이 만남과 이별이 주인공의 이후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칠 정도로 심중한 의미를 갖는 점,<sup>37</sup> 넷째, 두 인물이 시나 노래를

<sup>34</sup> 나말여초부터 16세기까지의 애정 전기소설을 가리킨다. 한국 애정 전기소설은 17세기를 분기점으로 통속적 성향이 강화되는 등 질적인 변화를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 엄태식, 『한국 전기소설 연구』, 월인, 2015, 15쪽, 285쪽 참조.

<sup>35</sup> 외로운 인간으로서의 면모가 전기적 인간의 주요한 미적 특징이라는 점은 박희병, 「전기적 인간의 미적 특징」,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들레개, 1997, 36~41쪽.

<sup>36</sup> “전기소설 하면 누구나 인귀교환이나 이류와의 교구부터 떠올릴” 것임이 언급된 바 있다. 박희병, 「전기소설의 문제」, 앞의 책, 15쪽 참조.

<sup>37</sup> 박희병은 전기소설의 주인공, 특히 귀신인 여주인공의 죽음을 계기로 이야기가 중대한 전환을 맞는 구조를 보여준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고, 정술미는 전기에서는 귀신을 만난 후 인간이 삶의 커다란 전환을 맞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박희병, 앞의 책, 230쪽; 정술미, 앞의 논문, 152쪽.

통해 내면성을 드러냄으로써 깊이 교감하는 점,<sup>38</sup> 다섯째, 현실적 장애에 의해 사랑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이별을 맞는 점<sup>39</sup>에서 <케데헌>의 루미와 진우의 만남은 특히 우리 초중기 애정 전기소설과 견주어 볼 만하다.

그러나 우리 초중기 애정 전기소설의 인귀교환 모티프와 <케데헌>에서 이뤄지는 루미와 진우의 만남 사이에는 몇몇 차이도 존재한다.

첫째, 루미는 악령과의 혼혈이라는 남다른 정체성 탓에 초중기 애정 전기소설의 주인공처럼 고독한 존재로 표상되기도 하지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헌트릭스 멤버 조이와 미라나, 자신을 무한히 지지해주는 팬과 같은 존재들이 주변에 있다는 점이다.

둘째, 만남을 계기로 애정 전기소설의 주인공과 <케데헌>의 루미가 삶에서 큰 전환을 맞는다는 점은 같지만, 초중기 애정 전기소설의 주인공이 대개 입산채약(入山採藥)이나 부지소종(不知所終) 등의 비극적 결말을 보여주는 데 비해,<sup>40</sup> <케데헌>의 루미는 진우와의 이별 후에 혼문을 완성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수용하는 등 행복한 결말을 보여준다는 차이도 있다.

셋째, 초중기 애정 전기소설이 “작자의 우의를 담아내는 양식”<sup>41</sup>으로서, 인귀교환 모티프를 “작가가 가진 문제의식을 우의적으로 표현하는 문학적 장치”<sup>42</sup>로 활용하는 데 비해, <케데헌>에서 루미와 진우의 만남이 우의나 문제의식을 진지하게 담아내는 장치로 기능한다고 보기는 어

렵다. 루미와 이계의 인물인 진우와의 만남은 이 작품을 “감각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어 작품을 한층 환상적으로 착색”<sup>43</sup>함으로써, 이를 통해 통속적 흥미를 고조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초중기 애정 전기소설의 주인공이 불우지사(不遇之士)로서 느낀 깊은 고독감으로 인해 단박에 인귀(人鬼)의 강렬한 교환(交歡)에 이를 수 있었고, 인(人)과 귀(鬼)라는 존재론적 차이로 인해 비극적 결말을 맞이해야 했음을 고려하면, <케데헌>의 루미가 고독한 가운데서도 주변인들과 가졌던 유대감이 그가 여성 영웅으로서 혼문을 완성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행복한 결말을 맺게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케데헌>은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지닐 수 있었던바, 시종일관 비극적인 정조가 흐르는 초중기 애정 전기소설과는 구별되는 미감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초중기 애정 전기소설의 인귀교환 모티프와 <케데헌>이 보여주는 남녀 주인공의 만남이 보여주는 공통점과 차이를 살펴보았다. 외국인과 우리 학생들은 둘 간의 공통적 요소를 통해서도 우리 애정 전기소설 장르의 특징적 요소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현대의 K-대중예술로서의 <케데헌>과 문인 계층의 소외감과 욕망을 주로 담아낸 애정 전기소설의 미감이 갖는 차이를 통해서도 우리 애정 전기소설 장르의 미감을 이해하는 데 나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상에서는 <케데헌>과 우리 애정 전기소설을 비교해 보았다. 교수자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전기소설의 특징과 미감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 후 다음의 문제를 제시할 수 있다.

◎ 전기소설과 <케데헌>의 남녀 주인공들은 어떤 면에서 내적으로 유사하고, 어떤 면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sup>43</sup> 정솔미는 중국 당대(唐代)의 전기에서 ‘현실을 벗어난 환상적 분위기’ 창출을 위해 귀신이라는 소재가 채택된 경향이 있음을 밝힌 바 있어 참조된다. 정솔미, 앞의 논문, 157~160쪽 참조.

<sup>38</sup> 전기소설의 남녀 주인공이 시나 사를 주고 받으며 서로의 깊은 감정을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애정을 더욱 돈독하게 한다는 사실이 지적된 바 있다. 박희병, 앞의 책, 52~53쪽.

<sup>39</sup> 일반적으로 나려시대 전기소설은 인(人)과 비인(非人)이 만나는 경우 모두 이별을 종결로 삼는 비극적 결말을 맺고 있으며, 금오신화의 <만복사저포기>, <이생규장전>, <취유부벽정기> 세 작품이 환상적 만남과 이별의 축조법으로 작품을 결구하고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 박희병, 앞의 책, 155쪽, 220쪽 참조.

<sup>40</sup> 박희병은 전기소설의 장르관습 가운데 하나로 남주인공이 입산채약하거나 부지소종인 것으로 처리되는 작품의 결말을 거론한 바 있다. 박희병, 앞의 책, 201쪽 참조.

<sup>41</sup> 엄태식, 앞의 책, 253쪽.

<sup>42</sup> 정솔미, 앞의 논문, 154~163쪽.

- ◎ 전기소설과 <케데헌>의 주인공이 갖는 특질은 둘의 결말 방식과 미감에 각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 전기소설의 삽입시와 <케데헌>의 OST는 어떤 다른 전통을 갖는가? 또 이들은 어떻게 같고 다르게 기능하는가?
- ◎ 전기소설과 <케데헌>의 향유층에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이는 장르적 성격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 ◎ 이상의 비교를 바탕으로 <최치원>, <만복사저포기>, <이생규장전>, <하생기우전>, <주생전>, <최척전> 등 다양한 전기소설 작품을 읽어본 뒤, 초중기 애정 전기소설과 17세기 전기소설의 차이를 스스로 정리해보자.

학생들은 이런 문제를 스스로 고민해보는 자기 주도적 학습 과정을 거쳐 전기소설의 장르적 특징을 보다 잘 이해하고, 개별 작품을 흥미롭게 감상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4. 결론

본고는 한국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영화 <케데헌>에서 우리 고전 서사문학의 편린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발견되기도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우리 고전 서사의 교육에 하나의 보조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탐색해 보았다. 이에 우리 고전 서사 문학 가운데 <케데헌>의 서사와 부분적 유사성을 보이는 여성 영웅소설 및 애정 전기소설을 <케데헌>과 견주어 보았다.

먼저 주인공 루미를 포함한 헛트릭스의 세 여성 멤버가 영웅적 면모를 지니는 점, 반동 인물인 악령들과의 군담을 보여주는 점뿐 아니라, 영웅이면서도 배제되어야 하는 존재라는 이중적 정체성을 갖는 점, 그로 인해 타자화를 경험하는 점, 배제되어야 하는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감추면서 그것을 바꾸고자 노력하는 점 등에서 여성 영웅소

설과 <케데헌>의 서사에 유사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대에는 여성 영웅이 시대적 한계로 인해 여성이면서 영웅인 이중적 정체성을 온전히 용인받지 못했던 것과 달리, 현대의 <케데헌>의 루미는 시대적 한계를 벗어나 자유로운 상상력과 만나게 됨으로써 이중적 정체성을 가진 영웅으로서 스스로 주체가 되는 길을 새롭게 보여주었음을 밝혔다.

다음으로 루미가 고독한 존재로서 이계의 존재인 진우와 만나 깊이 교감하고 서로 위로한바, 이 만남을 통해 루미는 자신을 받아들이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나 혼문을 완성했지만 둘은 끝내 이별할 수밖에 없었다는 <케데헌>의 서사가 <최치원>, <이생규장전>, <만복사저포기> 같은 우리 초중기 애정 전기소설의 인귀교환 모티프와 여러모로 닮은 부분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주인공이 깊은 고독감을 갖는 점, 인간과 귀신[악령]간의 강렬한 만남이 이뤄지는 점, 이 만남과 이별이 주인공의 이후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칠 정도로 심중한 의미를 갖는 점, 두 인물이 시나 노래를 통해 내면성을 드러냄으로써 깊이 교감하는 점, 현실적 장애에 의해 사랑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이별을 맞는 점에서 우리 초중기 애정 전기소설의 인귀교환 모티프와 <케데헌>의 루미와 진우의 만남이 유사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루미는 고독한 존재로 표상되기는 했지만 사랑하는 존재들이 주변에 있기에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는 점, 루미와 이계의 인물인 진우와의 만남이 우의나 문체의식을 담아내기보다 이 작품의 통속적 흥미를 고조시키는 장치로 기능하는 점에서 애정 전기소설과 차별되는 지점도 있었다. 이러한 차이를 통해 <케데헌>은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지니게 됨으로써, 초중기 애정 전기소설의 비극적인 정조와는 구별되는 미감을 갖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에서 여성 영웅소설 및 초중기 애정 전기소설과 <케데헌>의 서사에서 발견되는 공통점과 차이를 살펴보

왔다. 본고에서 이루어진 <케데헌>과 우리 고전 서사 장르의 비교가 우리 고전 서사 교육에 활용됨으로써, 우리 고전 서사를 어렵고 낯설게 여기는 우리 학생들과 외국인들이 현대의 세계적 인기 서사 <케데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성 영웅소설 및 애정 전기소설 등 우리 고전 서사를 보다 친근하게 접하여, 그 장르적 특성을 쉽게 이해하고 개별 작품을 흥미롭게 감상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및 논문

- 권도경, 「한국고전영웅서사원형의 재생산과 코리안 슈퍼히어로물의 탄생, 그리고 헐리우드 슈퍼히어로물과의 서사코드적 차이」, 『비교한국학』 22(1), 국제비교한국학회, 2014.
- 김나혜, 「〈방한림전〉과 〈부장양문록〉에 나타난 여성영웅의 차이와 그 의미」, 『어문론총』 56, 한국문학언어학회, 2012.
- 김수연·윤서연·오지원, 「디지털 감수성과 대학의 고전문학 교육: 메타버스를 활용한 <고전문학과 영상>(DT)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56, 이화어문학회, 2022.
- 김하라, 「〈李生寤穉傳〉과 〈그 여자네 집〉 함께 읽기를 통한 한문소설 수업 방안 모색」, 『한문교육논집』 55, 한국한문교육학회, 2020.
- 박희병,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 \_\_\_\_\_, 『한국 고전소설연구의 방법적 지평』, 알렙, 2019.
- 서유경,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고전소설교육 설계」, 『고전문학과 교육』 10,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5.
- 송성욱, 「조선시대 영웅소설과 슈퍼히어로」, 『고소설연구』 49, 한국고소설학회, 2020.
- 송팔성, 「한국고전문학교육 영상콘텐츠의 담론 유형별 활용 및 글쓰기 방안」, 『고전문학과 교육』 14,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7.
- 엄태식, 『한국전기소설 연구』, 월인, 2015.
- 이유경, 「고소설의 전쟁 소재와 여성영웅 형상: 여성영웅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0, 한국여성문학학회, 2003.
- 이승은, 「국내외 디지털인문학 교육 사례와 고전문학 교육에의 시사점」, 『고전문학과 교육』 51,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22.
- 이정원, 「영웅소설의 괴물 문제: 슈퍼히어로와의 대비의 관점에서」, 『우리어문연구』 55, 우리어문학회, 2016.
- 이지하, 「주체와 타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여성영웅소설」, 『국문학연구』 16, 국문학회, 2007.
- 전용문, 「여성영웅소설의 계통적 연구」, 충남대박사학위논문, 1998.
- 정병현, 『한국의 여성영웅소설』, 태학사, 2000.
- 정선희, 「고전소설의 문화콘텐츠화를 위한 수업 방안 연구」, 『한국고전연구』 37, 한국고전연구학회, 2017.
- \_\_\_\_\_, 「대학 전공교육으로서의 고전소설 수업 방안 연구: 쓰기 실습과 주제어 접근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61, 한국고전연구학회, 2023.
- 정솔미, 「한국 문헌소재 귀신담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2021.
- 조은희, 「고전 여성영웅소설의 여성주의적 연구」, 대구대박사학위논문 2005.
- 주지영,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외국인 학습자 대상 한국 고전문학 교육방안: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을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44,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23.
- 최지녀, 「여성영웅소설의 서사와 이념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2015.
- \_\_\_\_\_, 「여성영웅소설과 로맨스 판타지 웹소설의 비교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5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25.
- 한길연, 「사범대학 고전문학교육의 현황과 제언」, 『문학교육학』 63, 한국문학교육학회, 2019.
- 황혜진, 「문화적 문식성 교육을 위한 고전소설과 영상변용물의 비교 연구」, 『국어교육』 116, 한국어교육학회, 2005.

### 2. 기타 자료

- 박정환, 「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 영국 음원·북미 극장 흥행 동시 석권」, 『글로벌비즈니스』, 2025.8.25.
- 사지원, 「케데헌 열풍이 우리에게 남긴 것」, 『동아일보』, 2025.8.25.
- 신정원, 「케데헌, 누적 시청수 3억 돌파. OST 빌보드서 호성적 유지」, 『스포츠헤럴드』, 2025.9.17.

오경진, 「케데헌 메기강감독 “루미의 이중적 정체성: 보편적 공감 이끈 힘”」 『서울신문』, 2025.8.22.  
이종길, 「케데헌 성공 비결. 완벽 강요하는 사회에 던지는 질문[케데헌 현상]」 『아시아경제』, 2025.8.20.

---

### Abstract

## Classical Narrative Education in the Digital Age and <K-pop Demon Hunters>

Chung, Borami |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s narrative elements of Korean classical fiction embedded in Netflix's K-Pop Demon Hunters to explore its pedagogical potential for classical narrative education. The study identifies structural and thematic similarities between the film and traditional genres such as the female hero novel and romantic Cheongi novel. Like the female hero narratives, the three members of "Hunrix" embody heroism, dual identity, and struggles with otherness. However, unlike classical heroines bound by social constraints, Rumi transcends these limits through imaginative self-realization. Similarly, parallels with romantic Cheongi novels appear in the themes of loneliness, human-spirit encounters, and poetic communication, though K-Pop Demon Hunters diverges with its optimistic ending rooted in communal love. This comparative analysis suggests that integrating modern global media like K-Pop Demon Hunters into classical narrative education can make traditional Korean literature more accessible to contemporary and foreign learners while deepening their understanding of genre and cultural continuity.

**Keywords** The Digital Age, Classical Narrative Education, K-pop Demon Hunters, Female Hero Novels, Romantic Cheongi Novel, Digital Content

---